

바빠진 '빅3'... 캠프 꾸리기·인선 박차

■ 새정치, 전대 경선레이스 본격화

문재인, 개방성·다양성으로 외연 확대... 17일 출마 밝힐듯

박지원, 베이스캠프 차리고 인재영입... 동교동계 측면 지원

정세균, 캠프 사무실 마련... 광주서 간담회, 통합 혁신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 등 이른바 '빅 3'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빅 3'는 17일 비대위원직을 동반 사퇴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 등록일(27~28일)에 앞서 본격적으로 캠프 꾸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당원과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만한 호소력 있는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대에서는 정치혁신실천위의 제안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의 선거 캠프 참여가 금지됨에 따라 '빅 3'는 진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문재인 비대위원 측은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비대위원 측은 특히 '친노 패권' 프레임 탈피를 위한 외연확대 차원에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키워드로 캠프를 차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19대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일부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그간 대변인격으로 활동한 윤호중 의원이나 정무특보 역할을 해 온 정태호 서울 관악을 지역위원장인 현역들의 캠프 활동 금지령 탓에 공식 활동이 어려워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는 17일 오후 정당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출마 여

부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지난달 국회 앞 대하빌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대하빌딩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 캠프로 썼던 명당자리로 '제왕의 기운'이 서린 곳으로 통한다. 박 비대위원은 대변인에 손전 고문의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김유정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본인이 원내대



“유서 공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14일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중 죽음에 이른 최 경위에게 애도를 표하며 “최 경위가 남긴 유서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 시절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 전현희 전 의원을 일찌감치 영입했다.

조직통인 박양수 전 의원이 외곽조직을 맡았고,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황인철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 등이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옥두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 인사들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캠프 사무실을 국회 앞 금영빌딩에 마련한 상황이다.

대변인으로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 측인 송두영 전 경기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대위원 측은 조직력을 자랑하는 만큼 캠프 구성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나 현역들의 캠프 참여 금지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 비대위원은 또 14일 광주를 찾아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 재건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정권 재정출을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진노·비노로 나뉘고 신당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래선 안된다”며 “통합과 혁신을 내걸고 이번 전당대회는 당 혁신과 민생에 대한 아젠다의 대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아직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 대표가 맡겨지면 분권화·투명화·민주화의 3대 기조와 조직·정책·문화·공천·인사분야의 당 혁신 5대 과제를 위한 혁신 기획단을 상시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 혁신위, 정당 후원금 부활 검토

야권 “허용편 여당 쏠림 현상” 반발할 듯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혁신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의 중간 단계로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정당의 자체 후원회 운영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의 개인 후원회만 허용된다.

문제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만 허용하다보니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이나 회원명으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차명을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또 평상시의 경우 국회의원만 개인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금과 조직 면에서 정치 신인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할 경우 현행처럼 개인 후원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 허용으로까지 어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정치 후원금의 여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진당 지도부 선출... 주말 광주·전남 유세

대표 후보 강병기씨 단독 출마

장원섭·유현주 최고위원 도전

통합진보당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 당원투표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제4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동시에 당직선거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인 가운데 대표 선거에는 강병기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재연·송영주·유현주·장원섭 후보(기호순)가 각각 입후보해 열린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후보들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전남과 광주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치를 아끼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코 해산될 수 없는 정당”이라며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번 동시 당직선거는 정부의 정당 해산에 맞서 당원들과 최선두에서 현 정부와 맞서 싸울 지도부를 뽑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의원 16일 방북 추진...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사진) 의원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16일 방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평화센터 측 한 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측을 대표해 박 의원이 16일 개성을 방문하기로 조율이 이뤄져 지난 12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북이 승인될 경우 이 여사의 조화를 전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의 조화 전달계획은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양건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겸 대남비서를 통해 개성에서 조화와 조전문을 보낸 데



대한 담례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신청이 들어와서 현 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인 이 방북의향을 전달했고, 이후 방북이 추진됐으나 의뢰인의 권유 등으로 포기했다. 한편,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등 8명도 지난 10일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정을 현대그룹 회장 명의의 추모 화환을 전달 계획이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최모 경위 자살... 靑문건 수사 고비

檢, 이재만 비서관 소환조사... 박지만 회장도 출석 통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후관전 격인 '7인회' 실제 규명을 앞두고 예상 밖의 고비를 맞았다.

검찰은 정운회(59)씨에 이어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건을 관통하는 법리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기대보다 쉽지 않은 데다 피의자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이재만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박

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운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심상사’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

고 받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운현(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감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감비서관실 문건을 받아 보게 된 배경과 구제직 입성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감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박 회장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은 정운회씨와 박지원 EG 회장 간 권력암투설의 진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머금고 있지만, 범죄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간단명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문건을 유출하고 외부에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문건 유출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정보1본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범리 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이런 가운데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 문건 유출 경로 규명이 필요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 건조기의 2중
-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 대형 제습기의 2중
-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